

제2회 119문화상
동화
(수상 예정작)

목 록

접수번호	제 목	페이지
16	마지막 약속	1
63	위대한 영웅	5
70	할머니 냄새	11
73	캠핑장에 간 몰티즈와 여우	16
198	소방관이 된 여우	20
209	아빠의 마스코트	24
247	소방관의 미소	28

성탄이는 특별한 강아지입니다. 성탄절에 태어났거든요. 모든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 성탄이는 축복처럼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 돌이 막 지났을 때였다고 들었을 뿐이에요. 세 살 된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고, 그 옆에는 귀여운 강아지가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앉아 있어요. 나와 성탄이의 아기 적 사진은 거실 액자에 커다랗게 걸려있습니다. 아빠는 늘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똑똑한 강아지였단다. 그래서 경찰견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성탄이가 임무를 완수하는 날. 다시 데리고 올 거야. 성탄이는 매우 영리한 강아지니까 아마 우리 가족을 잊지 않고 있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성탄이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경찰옷을 입고 위험물을 탐지하는 성탄이를 그려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멋있을까요! 성탄이는 해야 할 일이 무척 많대요. 폭발물 같은 것도 탐지해야 하고, 갑자기 실종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도 한 대요. 침입자를 경계하는 일을 매우 잘해서 경찰관 아저씨들이 무척 예뻐하는 강아지래요.

정확히 말하면 성탄이가 더는 강아지는 아닙니다. 언젠가 단짝 세건이가 말해 주었는데 강아지는 일 년에 7살씩 나이를 먹는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살지 못한다고, 말해 주었지요. 세건이네 집에는 세건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강아지가 있었는데 세건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죽었다고 했습니다. 늘 곁을 지켜주던 푸들 강아지였는데 병이 들어 죽고 말았대요. 세건이는 제법 어른처럼 말했지요.

“웅아, 그래서 난 결심했어. 절대로 강아지를 키우지 않겠다고 말이야. 우리가족은 너무 너무 슬펐단다. 지금도 똥똥이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굽슬굽슬 털이 꼬불거리던 푸들의 이름은 똥똥이였나 봅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탄이라는 이름보다 똥똥이라는 이름이 경찰견에 더욱 잘 어울린다고요.

부디 성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바쁘십니다. 성탄이가 곧 은퇴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시며 마당에 푹푹푹 개집을 만들고, 애견전문점에서 사료를 사다 나르십니다. 경찰복을 벗고 집에 돌아올 성탄이를 위해 예쁜 옷도 마련해 두셨어요.

성탄이가 경찰견이 되기 위해 집을 떠난 지 꼭 칠 년 만에 돌아오는 거래요. 아무리 성탄이가 경찰 일을 잘 해도 육 년이 지나면 일을 계속할 수 없대요. 나이가 많아지는 늙은 개는 은퇴식을 하고 다시 돌봐 주던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탄이는 참 대단한 견생을 사는 셈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성탄이만 기다리는 것 같아 약간 셈이 나기도 하지만, 나도 사진 속의 강아지가 무척 보고 싶습니다.

성탄이가 돌아오던 날, 우리 가족은 문 앞에 나가 목이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멋지게 임

무를 마친 성탄이는 꽃으로 장식된 근사한 목걸이를 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성탄이를 부르셨어요.

잠시 멈춰,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던 성탄이는 아버지가 두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자 대번에 와락 안기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성탄이와 바닥을 뒹굴며 기쁘게 성탄이를 맞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성탄이의 등을 살며시 어루만져 주시며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성탄이! 정말 고생했다. 우리 성탄이!”

나도 성탄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이 기뻐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탄이도 나와 헤어질 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똑똑한 성탄이는 정말 최고예요. 멀리 공을 던져주면 재빠르게 달려가 물어오고 원반도 척척 잘 받아요. 낯선 사람이 오면 킁킁 짓어 우리를 지켜주고 자주 만나는 택배 아저씨에게겐 사납게 굴지도 않고요. 사람을 잘 기억하고 밥도 맛있게 잘 먹어요.

나는 성탄이가 좋아서 아버지께 받은 용돈을 아껴 성탄이에게 개껌을 사주고,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캔도 사다 날랐답니다.

성탄이는 아빠를 제일 좋아하고, 엄마를 두 번째로 좋아하고, 나를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것 같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내가 더 잘해주면 분명 나를 제일 좋아할 테니까요.

나는 세건이에게 찾아가 매일 성탄이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건이도 강아지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번에 단짝이 되었어요. 하루는 세건이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시다. 푹푹이가 쓰던 물건이라고 하며 강아지 번역기를 내게 선물해 준 것이지요.

“웅아, 정말 내가 아끼던 물건이야. 푹푹이를 잊고 싶지 않았거든. 그걸 성탄이 목에 채워주면 성탄이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말로 번역을 해주는 특별한 기계란다. 진짜 신기해. 내가 잘 놀아주면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끔 밥을 챙겨 주지 못했을 때는 배고프다고 신경질도 내더라니까! 아직 푹푹이의 말들이 남아 있어서 간직하고 싶었는데…….”

언젠가 강아지 번역기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이라 살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요. 나는 멀뚱멀뚱 세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에게 줄래. 너랑 성탄이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한 가이지만 부탁하자. 거기에 남아 있는 푹푹이의 마음들은 지우지 말아주라. 해 줄 수 있지?”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웬지 세건의 마음이 헤아려졌기 때문입니다.

유난히도 학교에 있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빨리 집에 돌아가 성탄이의 목에 번역기를 걸어주고 놀고 싶은 마음에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시다.

한달음에 달려 집에 도착했고, 역시나 성탄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번역기의 전원을 켜고 성탄이의 목에 걸어주었지요. 성탄이는 큰 소리로 킁킁 짓었습니다. 번역기에 불이 깜빡였어요.

“정말 반가워. 보고 싶었어!”

우와~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는 마당에서 한바탕 공놀이를 하고 즐겁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덩동덩동 벨 소리가 울렸어요. 성탄이는 문으로 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성탄이는 킁킁 짓었고, 또다시 번역기는 성탄이의 말을 전해 주었지요.

“기다려. 내가 먼저 나가볼게.”

“절대 함부로 문을 열지 마.”

택배 아저씨가 커다란 상자를 대문 앞에 두고 가셨습니다. 세건의 선물은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근사한 선물이 또 있을까요?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아 발을 동동 굴렀지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성탄이는 아버지를 향해 꼬리를 살랑거리며 달려나갔고요. 번역기에는 깜빡깜빡 불이 들어왔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기분 최고예요!”

아직도 성탄이는 아버지가 제일인가 봅니다. 이건 비밀인데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성탄이가 일등으로 좋아요. 학교에 가도 성탄이 생각만 납니다.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낯선 사람이 와서 화가 나지는 않았는지 자꾸자꾸 생각이 나죠. 아마도 사랑병에 걸린 모양입니다. 오늘도 학교에 오는데 성탄이랑 헤어지기 싫어서 혼났습니다. 나는 성탄이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약속했지요!

“학교가 끝나는 대로 올게! 조금만 기다려~ 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참아~!”

나는 성탄이가 점점 좋아질수록 세건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의 일 년은 강아지의 칠 년과 같아.’

성탄이와 같이 있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해 주고 예뻐해 주면서 알찬 나날을 보내면 되겠지요. 세건의 말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고 학교가 소란스럽습니다.

“불이야! 근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대요. 불이야!”

놀란 선생님은 헐레벌떡 교실로 들어오셨고, 검은 연기가 피어나는 곳을 가리키시며, 학교랑은 거리가 좀 있지만, 큰불이 났다고 모두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우왕좌왕 정신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손으로 가리키신 곳은 우리집과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갑자기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습니다.

성탄이가 검은 연기를 많이 마실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서 성탄이가 안전한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요?

빨간 불자동차는 신속하게 출동하였습니다. 멋진 소방관 아저씨들 덕분에 불길은 빠르게 잡혔습니다. 시꺼먼 연기가 더는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동원되어 신속하게 불을 꺾습니다.

세건이에게만 고백했지만, 나의 꿈은 멋진 소방관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보람 있을 것 같고, 나도 성탄이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화재를 진압하는 멋진 소방관 아저씨를 보며 꿈은 더욱 확실해졌지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강아지야! 눈물이 나려고 하네!”

누군가 훌쩍이고 있습니다.

“저 녀석이 화재경보기를 울린 거라고 해요. 불길을 보고는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갔다잖아.”

“아 왜, 경찰견 출신이라고 하잖아. 웅이네 강아지잖아. 딱해서 어 쟈…….”

더는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놀란 어머니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섭니다. 하얀 천을 걷어내자, 까맣게 털이 그을린 성탄이가 눈을 감지 못한 채, 죽어있습니다. 어머니는 까맣게 타버린 성탄이를 꼭 끌어안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울고만 계십니다. 꿈만 같아서, 나는 그 자리에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입니다.

불을 끄다 옷이 엉망이 되어 버린, 소방관 아저씨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가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진짜! 용감한 녀석이에요.”

“위험을 감지하는 순간, 앞뒤 가리지 않고 오직 사람을 구하기 위해불길로 뛰어 들더라구요.”

“확실히 경찰견 출신이라 다르네요.”

바보……. 은퇴했으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나랑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지……. 힘없이 죽을 거면서 멍청하게 불길 속으로 왜 뛰어들어가니……. 일찍 온다고 약속했잖아…….

성탄이는 그렇게 아주 잠깐 내 곁에 머물다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탄이 덕분에 생명을 건진 많은 사람은 성탄이를 기념하며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요. 나는 멋진 성탄이를 대신해 소방관 아저씨들께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평생을 사람들을 위해 살다간 나의 성탄이, 다음 세상에는 경찰견이 아닌, 그냥 우리집 반려견으로 태어나 오래오래 위험하지 않게 살고 싶습니다. 모서리가 살짝 녹아버린 번역기는 깜빡이며 성탄이의 마지막 말을 전해 주었지요.

“고마웠어. 또 만나자.”

훗날, 나는 훌륭한 소방관이 되어서 성탄이처럼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만드는 멋진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성탄아, 나도 정말 고마웠어. 다시 만나는 날에는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사랑해!”

끝.

“진섭아, 하지 마! 어서 들어가자!”

학원 건물 앞, 아이들은 발끈해서 씩씩거리는 진섭이에게 달라붙어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뺐다. 화가 단단히 난 듯 진섭이 이를 악물고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쏘아보는 상대는 또래 친구가 아닌 머리카락이 새하얀 할아버지였다.

“설탕 할아버지! 지금 말 다했어요?”

“아직 다 안 했다, 이놈아! 그래, 네 아빠가 사람 구해서 좋겠구나! 사람 구하느라 바쁘다고 운동회도 못 가고 학예회도 못 가는 그런 아빠한테 잘 해드려라! 뭐, 일단 집에나 들어와야 잘해주겠지만 말이야.”

“설탕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저희 아빠를 깎아내려요?”

“깎아내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거 봐, 사람 구한다고 자기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한다니까!”

진섭이나 설탕 할아버지나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채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말리느라 진땀 빼는 친구 중 부모님이 중국집을 하는 천승이가 진섭이를 달래며 말한다.

“진섭아, 이따 학원 끝나고 우리 집에 가서 짜장면 먹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랬잖아? 너희 가족한테는 음식값 안 받는다고 말이야.”

“지금 짜장면이 넘어가게 생겼어? 우리 아빠를 욕하는데?”

“탕수육이랑 군만두도 달라고 할게.”

그제야 진섭이는 표정을 풀었지만, 여전히 성난 목소리로 설탕 할아버지를 향해 경고하듯 내뱉었다.

“나중에 설탕 할아버지 집에서 불났을 때나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해줄 사람은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라는 것만 잘 알아두세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구해주기 위해서...”

“진섭아, 저런 이상한 할아버지한테 신경도 쓸 필요도 없어. 이제 수업 시작할 시간이니까 빨리 들어가자.”

친구들이 재촉하자 진섭이는 설탕 할아버지와 싸움을 멈추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원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천승이는 진섭이를 다독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다.

“너희 아빠가 멋지고 좋은 분이라는 건 다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 우리 부모님도 너희 아빠 많이 좋아하신다더라. 나한테도 식당 물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공부랑 운동 열심히 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셔. 식당 물려받고 탕수육 원 없이 먹는 게 내 꿈이었는데.”

“중국집 사장이라고 탕수육 마음대로 먹었다간 큰일 난다.”

천승이가 아빠를 멋지다고 칭찬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짜장면과 탕수육을 쏘겠다고 했기 때문인지 진섭이는 기분이 완전히 풀린 듯 해맑게 웃으며 4층 학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설

탕 할아버지는 분이 안 풀리는지 계속 씩씩거리며 1층 카페로 들어왔다.

“야, 바리스타야! 커피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긴요, 다 식었죠. 차가운 커피라도 드실 건가요?”

“다시 타! 설탕도 팍팍 뿌리고!”

“어르신, 설탕 너무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먹겠다는데 몸에 좋고 안 좋고 그런 게 어딴어? 잔말 말고 설탕 팍팍 뿌려!”

바리스타가 한숨을 푹 내쉬며 커피를 만들기 시작하자 설탕 할아버지는 신문을 집어 들고는 읽어 내리기 시작했다. 신문에는 방화복을 입고 헬멧을 옆구리에 낀 소방관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어린 시절 구해준 소방관 덕분에 키우게 된 영웅의 꿈』

소방관 인터뷰 기사라는 걸 알게 되자 안 그래도 인상을 잔뜩 찌푸리던 설탕 할아버지의 얼굴은 손에 쥔 신문지처럼 구겨졌다. 신문을 거칠게 내려놓은 신문 할아버지는 바리스타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찌렁찌렁 울리는 걸쭉한 목소리로 자신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야, 바리스타야! 내가 잘못된 거야? 저 위에 학원 다니는 꼬마 하나가 자기 아빠는 사람 여럿 구한 소방관이라고 자랑하고 다른 꼬마들도 부럽다, 대단하다, 호들갑들 떨길래 내가 소방관 안 좋은 직업이니까 너희 아빠한테 당장 그만두라고 전해달라고 했거든? 그런데 다 짜고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소방관 아들? 혹시 개 이름이 김진섭인가요? 자기 아빠가 김창식 소방교라고 얘기했어요?”

“몰라, 꼬마 이름도 내 알 바 아닌데 김창식 소방교인지 김장철 소고기인지 알 게 뭐야? 그게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야?”

“네, 아주 유명하고말고요. 사람 여럿 구한 소방관이예요. 구해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도와주기로도 유명하죠. 사고로 다친 환자가 있으면 병문안 오기도 하고 몸이 불편하면 도와주니까요.”

“성실하고 선량한 소방관이구먼. 그런데 아무리 사람 많이 구하고 도와주면 뭘 하나? 어차피 남는 건 후회밖에 없는데.”

설탕 할아버지의 말에 바리스타는 커피에 설탕을 타던 손을 멈추고 놀란 두 눈으로 쳐다보았다. 설탕 할아버지는 바리스타를 향해 어서 커피를 가져오라는 손짓을 하며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내가 장담하는데 저 꼬마도 커서는 자기 아빠가 존경받는 소방관이라는 걸 자랑하지 않게 될 거야. 소방관은 사람을 구해주는 대신 자신의 뭔가를 잃게 되는 직업이거든.”

커피를 건네주러 온 바리스타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으로 설탕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조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설탕 할아버지는 성격이 괴팍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할 것 없이 피하고 본다. 진섭이도 평소라면 설탕 할아버지

가 뭐라고 시비를 걸든 그냥 넘어갔지만, 오늘은 소방관인 아빠를 욕하는 바람에 발끈하고 말았다.

“저런 괘씸한 꼬마를 다 보겠나!”

설탕 할아버지는 자기 잘못은 전혀 없다는 듯 이를 갈더니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향했다. 하지만 화장실마다 사람이 들어차 있는 탓에 결국 4층 화장실까지 올라간 설탕 할아버지는 참 우연스럽게도 때마침 화장실로 들어가던 진섭이와 마주쳤다. 원수끼리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친 셈이지만 둘 다 급했기에 화장실 칸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설탕 할아버지가 벽 너머 진섭이에게 말을 건넸다.

“야, 꼬마야! 여기 휴지가 없으니까 좀 줘라!”

“싫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욕했잖아요!”

“그게 욕한 거냐? 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다!”

설탕 할아버지와 진섭이는 또 한 번 벽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다투던 둘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밖이 소란스럽다는 걸 알아차렸다.

“꼬마야! 거기 창문 있지? 대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밖에 사람들 많이 몰려 있고 소방차랑 구급차까지 왔는데 드라마라도 찍나?”

“뭐? 소방차가 와? 이삿짐 사다리차를 잘못 본 건 아니고?”

“네, 소방차 맞아요. 지금 이 아래로 물도 뿌리고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휴지 좀 줘!”

차분하게 창밖을 구경 중인 진섭이와는 달리 설탕 할아버지는 사색이 된 채 칸막이벽을 두드려댔다. 둘이 화장실에서 휴지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3층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다. 화장실이 위낙 구석에 있었고 둘이 시끄럽게 다투던 탓에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알지 못하다가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한편 천승이를 비롯한 친구들은 불이 심하게 번지기 전에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진섭이가 안 보이는데?”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천승이는 진섭이가 보이지 않자 친구 반석이에게 물었다.

“진섭이 못 봤어? 너랑 같이 편의점 가지 않았어?”

“배 아프다고 화장실 간다고 들어갔는데...”

말을 끝마치기 무섭게 반석이나 천승이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때마침 곁에서 소방호스로 불을 끄던 소방관에게 매달렸다.

“아저씨, 진섭이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뭐? 너희랑 같이 나온 거 아니었어?”

현장을 지휘하던 소방관은 진섭이의 아빠였는데 아이들에게 진섭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한시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건물로 뛰어들려는 순간이었다.

“저기에 사람이 나왔어요!”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의 시선이 건물 입구로 향했다. 그을음을 뒤집어쓴 노인이 마찬가지로 그을음을 뒤집어쓴 아이를 업은 채 절뚝거리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곧 노인이 쓰러지자 등에 업혔던 아이도 바닥에 퐁굴었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둘의 상태를 보니 아이는 콜록거리며 우는 반면, 노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진섭아, 너 괜찮은 거야? 다리가 많이 부었는데?”

“난 괜찮아! 그런데 설탕 할아버지가...”

진섭이는 콜록거리며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대강 어떻게 된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뒤늦게 연기를 뚫고 불을 무릅쓰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던 중 진섭이가 다리를 다치자 설탕 할아버지가 업은 채 가까스로 탈출한 것이다. 병원에 실려 간 진섭이는 심각하게 부어오른 발목에 깁스까지 둘렀지만 아픔을 호소하지는 않고 설탕 할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모님과 친구들이 와서 안부를 물을 때도 진섭이는 설탕 할아버지의 상태만 물었다. 곧 설탕 할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진섭이는 목발을 짚은 채 허겁지겁 응급실로 내려가니 붕대로 곳곳을 동여맨 설탕 할아버지가 그곳 의사선생님을 붙잡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다.

“의사양반, 그 꼬마는 어떻게 된 거요? 그, 누구냐, 소방관 아들이라는 꼬마 말이오!”

“아, 무사해요. 정형외과 쪽으로 보냈으니 곧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꼬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어느 병실에 있다고요?”

“병실은 아니고 정형외과에서 검사받고 있을 거예요. 어르신 몸도 성치 않은데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의사가 안심시켰지만, 설탕 할아버지는 쉽게 진정하지 못했다. 평소 무섭고 짜증 나는 모습이 떠올라서 망설이던 진섭이는 굳게 결심하고는 설탕 할아버지의 곁으로 다가갔다.

“저, 설탕 할아버지?”

“뭐야, 넘어졌을 때까지만 해도 죽네사네 하더니만 멀쩡하네? 아니, 다리도 성치 않으면서 누워있지, 여긴 왜 왔어?”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하고 싶어서요. 저 때문에 화나셨을 텐데 저를 구해주셨네요.”

“거긴 내 조카 건물이야. 안 그래도 불난 건물에서 사람까지 잘못됐다고 하면 조카 녀석이 화내면서 내 용돈 끊어버릴 게 분명하거든. 널 위해서가 아니라 날 위해서 한 거다.”

여전히 진섭이에게 통명스럽게 대하며 얼굴조차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설탕 할아버지였다. 더 감사하다고 말할지 아니면 그냥 같지 고민하는 진섭이의 곁으로 아빠가 다가왔다. 설탕 할아버지는 아빠를 쭉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가 그 꼬마 아버지로군. 얘기는 많이 들었어. 소방관이라고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던데?”

“네, 저희 아들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례를 해야 할지...”

“사례는 됐어. 그 건물에서 다들 멀쩡하게 나왔으면 그만이지. 나한테 사례할 돈이랑 시간이 있으면 가족에게나 해줘. 별 볼일도 없는 노인네한테 사례는 무슨...”

“별 볼 일 없는 노인네는 아니실 겁니다. 혹시 25년 전쯤에 ◇◇소방서에서 근무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소방장이셨고요.”

귀찮다는 듯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손을 휘휘 젓던 설탕 할아버지였지만 아빠의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눈을 크게 뜨고 입도 크게 벌린 채 놀란 표정을 보였다. 아빠는 활짝 편 표정으로 설탕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맞네! 장철수 소방장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25년 전, 초등학교 수학여행 숙소 화재 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베란다에서 나오지 못하던 저를 구해주신 분이 장철수 소방장님이셨죠!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래를 빛낼 별을 구했으니 언젠가는 밝게 빛나 소방장님도 볼 수 있게 되라는 말씀 말이에요!”

“아, 그때 숨바꼭질하다가 옷장 안에서 잠들어서 제때 빠져나가지 못했다던 그 친구 아니신가? 정말 몰라보게 컸어!”

설탕 할아버지 역시 활짝 웃으며 아빠의 손을 마주 잡았다. 진섭이는 볼 때마다 화나서 인상을 찌푸리던 설탕 할아버지가 해맑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며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게다가 소방관이었다는 사람이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욕하니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설탕 할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던 아빠는 자세를 낮춰 눈을 마주 보며 입을 열었다.

“제가 소방관이 되고 나서 감사인사를 드리기 위해 장철수 소방장님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좋지 못한 얘기를 들었어요. 하루하루를 죄인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를요. 하지만 장철수 소방장님이 죄인이 아닌 영웅이라는 건 지금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장철수 소방장님은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신 영웅이십니다. 오늘은 제 아들을 구해주셨고요.”

설탕 할아버지는 울먹거리더니 아빠와 서로 부둥켜안았다. 곧 안경을 쓴 남자가 설탕 할아버지의 곁으로 달려왔다.

“삼촌, 괜찮으세요? 애 구해주다가 많이 다치셨다면서요?”

“이놈아, 삼촌 병문안 오는데 먹을 거 하나 안 사오냐? 설탕 팡팡 뿌린 츄러스를 기대했건만!”

“응급실 실려 온 분이 무슨 과자예요!”

설탕 할아버지의 조카가 오자 아빠와 진섭이는 꾸벅 인사하고는 응급실 밖으로 나왔다. 아빠는 진섭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진섭아. 저 할아버지 나중에 퇴원하면 설탕 팡팡 뿌린 츄러스 사다 드려라.”

“아빠, 설탕 할아버지랑 아는 사이셨어요?”

“네가 평소 말하던 그 괴팍한 설탕 할아버지가 저 할아버지셨구나. 아빠가 어렸을 때 화재 현장에 갇혔다가 소방관 아저씨가 구해준 덕분에 소방관이 됐다고 말했지? 그 소방관이 저 할아버지야.”

“네? 그런데 저 할아버지, 아빠가 소방관이라고 하니까 후회하게 될 거라던가, 안 좋은 소리만 하던데요?”

“아빠도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장철수 소방장님, 그러니까 설탕 할아버지가 마음에 상처가 가득하셨거든. 늘 구해주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살다가 저렇게 되신 거래. 원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책임감 넘치셨던 분이셨는데 안타깝지. 그래도 예전에는 아빠를 구해줬고, 지금은 너를 구해준 분이니 꼭 인사드리고 고맙다고 말씀드리거라.”

“네, 아빠. 설탕 할아버지가 받아줄까요?”

“원래는 아이를 사랑하셨던 분이니 언젠가는 네 인사를 받아주시고 너랑 가까운 사이가 될 거야. 자리를 너무 비웠더니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군. 그럼 이따 집에서 보자, 진섭아. 다리 아픈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빠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는 진섭이를 껴안더니 바로 차를 타고 다시 소방서로 돌아갔다. 진섭이는 아빠를 향해 손을 흔들며 오늘도 탈 없이 집에 돌아오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내 등을 치는 바람에 놀라서 뒤를 쳐다보았어요. 옆집 사는 동구예요.

“뭘 하는 거야? 왜 뒤뚱거리며 걸어?”

동구에게 시시콜콜히 설명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교실에서 장래희망이 뭔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이야기하라 했을 때 선생님이 미웠어요. 평소에도 할아버지도 소방관, 아버지도 소방관이라 자신이 삼 대를 잇는 소방관이 되어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날 거라고 뽐내는 동구예요. 저번에도 학교 초청으로 동구 아버지가 강당에서 소방교육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얼마나 인기였는지 몰라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사각형의 보도블록 칸에 맞추어 발을 옮기고 있어요.

“대체 너는 왜 이렇게 걷는 건데? 이것도 놀이인가?”

정해 놓은 자리에서 발이 멈추었어요. 오른발이 당첨되었어요. 할 수 없네요. 오늘도 시장을 통과해야 해요. 왼발이 당첨되었으면 시장을 빙 돌아서 집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여러 냄새와 크고 작은 소리가 뒤섞여 들려와요. 채소에서, 과일에서, 고깃덩어리와 생선들에게서 나는 냄새들이 따로따로 구별되면서도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시장인 것 같아요.

시장이 작은데도 동네에서 유일한 시장이라 그런지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나치는 사람들에게서도 어김없이 냄새가 나요.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비슷할 것 같지만 다 다르더라고요.

“나은아! 이제 학교 끝나 집에 가는 길이구나?”

“나은아! 이거 먹고 갈래?”

“우리 이쁜 나은이가 학교 들어가고부터 쭉쭉 크는 것 같아!”

할머니 가게 주변에 있는 상인들 중에 나, 신나은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나은이는 좋겠다. 이 시장 안에서는 네가 공주라도 되는 것 같아.”

동구를 한 대 쥐어 박고 싶어요. 공주로 보이면 뭘 해요.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 손녀일 뿐이잖아요. 할머니는 이 시장 안에서 나를 업어가며 장사를 하셨대요.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면, 무슨 사고인지도 설명해주지 않는 할머니예요.

“오, 동구도 왔구나. 이거 먹고 들어가려무나.”

할머니는 동구네를 엄청 좋아해요. 동구네 엄마 아빠도 할머니한테 잘하지만요.

할머니는 싫다는 나를 억지로 앉혔어요. 옆집 떡 가게에서 가져온 찹쌀떡을 주었어요. 할머니가 파는 것갈 냄새 때문이라도 빨리 먹고 일어나려 해요. 내가 맨날 깨끗이 씻으라고

타박해도 할머니에게서 나는 소금기 어린 쿼퀴한 냄새는 없어지지 않아요.

나에게는 왜 향기로운 비누 냄새나 화장품 냄새나는 엄마와 동구 아빠처럼 인기 있는 아빠가 없는 걸까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새 옷을 입었어도 나는 친구들과 마음껏 어울리지 못했어요. 할머니에게서 나는 냄새가 날까 봐서요.

나도 모르게 쿵쿵거렸어요.

“할머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잘 모르겠는데?”

역시 우리 할머니답다니깐요. 할머니는 집에서도 냄비가 타들어 가도 잘 모른다고요.

“원래 나은이 코는 개 코라고 소문났잖아요!”

기어이 동구를 한 대 때렸어요. 떡을 좋아하는 동구는 콩가루 묻혀가며 히죽 웃고 말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빠른 걸음으로 걸었어요.

“어어, 같이 가! 너는 왜 할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거야?”

떡다 만 떡을 손에 든 동구가 할씩거리며 다가왔어요.

“할머니랑 살기 싫어! 떠날 거야, 어디론가 가버릴 거야!”

동구 입이 짝 벌어지면서 입가에 묻은 콩가루가 부스스 떨어졌어요.

“특하면 할머니를 왜 떠난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나은이 할머니가 내 할머니 같아 좋기만 한데.”

“흥! 냄새나는 할머니가 뭐가 좋아! 그럼, 앞으로 동구 할머니 하면 되겠네.”

젓갈 장수 할머니 손녀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함께 놀던 아이들이 쿼퀴한 냄새 난다고 인상 쓰며 코를 잡는 것도 보기 싫어요.

“에구구, 불이야! 불!”

뒤돌아보니 시장에 있는 휘장들이 타닥거리며 타오르고 있어요.

“불 냄새였어! 아까 네가 냄새난다고 한 게 저 불 냄새였어!”

동구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앗! 뜨거워!”

순식간에 불꽃이 이리로 튀었어요. 동구는 나를 시장 밖으로 막 잡아끌었어요.

“나은아! 금방 올 거야. 소방차가 오면 빨리 다 끝 거야.”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시장 쪽으로 급히 몸을 돌리는 나를 동구가 잡았어요. 동시에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 몇몇이 물 양동이를 들고 뛰었어요. 소방차가 들이닥치듯 도착하고 소방대원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우리 아빠도 분명 왔을 텐데. 아빠!”

동구가 아빠를 찾는 사이, 시장 쪽으로 넙다 달렸어요. 하지만, 곧 잡히고 말았어요. 내 팔을 그러쥔 사람은 동구 아빠였어요.

“이 팔 놔요! 할머니가 저 불 속에 있다고요! 할머니를 찾아야 해요!”

나는 발버등을 쳤어요.

“나은아! 그래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달려왔고, 할머니 구하러 내가 가잖니?”

동구 아빠의 목소리는 나지막하면서도 힘있게 들렸어요. 방화복을 입고 헬멧과 장갑 등 여러 소방장비로 무장한 동구 아빠가 여느 때와는 달라 보였어요.

불길이 솟구치는 곳으로 소방호스에서 나오는 물이 힘차게 뿜어져 나갔어요. 물방울이 안 개처럼 퍼지고 시커먼 연기도 솟아올랐어요. 언제 빠져나왔는지 옆 가게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이 불타오르는 시장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우리 할머니 못 보셨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질 것 같아요. 물건들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할머니는 천식도 있는데, 이런 매캐한 연기와 냄새를 맡아 쓰러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왈칵 밀려왔어요.

들것에 실려 나오는 사람을 볼 때마다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다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터져 나오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떠나 멀리멀리 갈 거라고 말해서 이런 일 생긴 거야.....”

“나은아! 우리 아빠는 약속 꼭 지키잖아. 할머니 찾아온다고 약속했어.”

시간은 흐르는데 할머니도, 동구 아빠도 보이지 않아요. 쉼 새 없이 눈물 콧물이 흐르니 냄새도 못 맡겠어요. 이러다가 영영 할머니 냄새도 못 맡게 될까 두려워요.

“앗! 아빠다!”

동구 아빠가 부축해서 나오는 사람은 분명 할머니였어요. 소방관들이 달려가 들것에 할머니를 누웠어요.

“나... 나은...아.....”

할머니가 나를 찾았어요. 썩썩, 기침하면서도 할머니는 나만 걱정하고 있어요.

“동, 동구랑... 네가... 시장 밖으로 무사히 나갔는지 찾아 헤매다가 그만.....”

할머니는 정말 바보예요. 불이 나면 살겠다고 무조건 먼저 뛰쳐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 품에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묻었어요. 탄 냄새, 연기 냄새까지 섞였어도 할머니 냄새는 살아있어요. 할머니 냄새가 이토록 친밀하고도 편안한지 처음 알았어요.

동구가 아빠를 향해 엄지를 세웠어요. 나도 동구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하고 상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동구가 미웠겠지요.

“이젠 울지 않아도 돼. 할머니는 오래오래 나은이 곁에 계실 거니까. 할머니는 절대로 나은이 곁을 떠나시지 않아.”

동구 아빠가 내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봐, 눈물 그치니까 두 눈이 더 뚫뚫해졌네? 아무래도 우리 나은이는 아저씨 딸 해야겠어.”

딸 해야겠다는 동구 아빠 말에 흘러내리려는 눈물을 두 손으로 얼른 훔쳤어요.

“나은아! 엄마와 아빠가... 너를 살리려 품 안에 꼭 안고 있었단다. 옆 건물에 불 난 게... 집까지 번져 왔거든. 그때 갓난아기인 너를 구해낸 사람이... 바로 동구 아빠였어.....”

엄마 아빠가 단지 사고로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어린 나에게 충격이 될까 봐 학교 들어가면 말해주려 한 거래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엄마와 아빠는 나 하나를 살리려 얼마나 애썼을까요.

구조하러 올 그들을 기다리며 젖은 이불로 감싼 갓난아기를 두 사람의 몸으로 겹쳐 싸면서 끝까지 버텨내었대요.

아이들의 질문에 답하던 동구 아빠의 얼굴을 새삼스럽게 바라보게 되네요.

..... 불길의 솟아오르며 날름날름 다가올 땐 나도 두려워요. 본능적으로 한 발이든 서너 발이든 뒷걸음치게 된답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지요. 한 치도 머뭇거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불길 속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 결국 생명을 구하게 되면 벽찬 기쁨이 되고, 소방관으로서 크나큰 보람이요, 보상이 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나오는데 동구가 쭈르르 달려왔어요.

“또 오른발, 왼발 하며 걸을 거야?”

한쪽 발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른발 왼발이 균형 맞추어 함께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답 대신 어깨와 허리를 펴고 발을 내디뎠어요.

“저번에는 흔들거리는 모습이 바보스럽다 못해 무지 웃기더라니까.”

내 속 굽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바로 동구라는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이제는 나은이 할머니 아니야. 내 할머니, 동구 할머니란 말이야!”

도망가는 동구를 있는 힘을 다해 따라 달렸어요.

“나은이가 왜 이리 헉헉거리며 달려들어 온다냐?”

“호호! 할머니가 잘 회복되어 일도 나오고 하시니까 신이 났나 보네.”

동구가 할머니 가게 앞에 가 멈추었어요.

“할머니, 동구 할머니! 나, 나, 동구 왔어요!”

“비켜! 동구 할머니 아냐! 나은이 할머니야!”

동구와 나까지 달려든 할머니 가슴은 푸근하기만 했어요. 짹조름하면서 구리기만 한 냄새조차 달큰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는 첫갈 냄새 묻어나는 손으로 떡을 입에 넣어주어도 잘 먹을 거예요. 할머니에게 더 먹여달라며 조를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싫은 것도 아니었고, 동구가 미웠던 것도 아니었나 봐요.

폼에 안긴 동구가 나를 결눈질하며 빙그레 웃었어요. 나도 할머니 폼으로 더욱 파고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을 향해 내닫고 있었다. 어느새 숲과 산은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곰 아빠와 돼지 엄마, 8살 몰티즈와 7살 여우. 이렇게 네 가족은 야외로 캠핑을 떠났다. 코로나19로 바깥공기를 마신지 한참 지났다. 그동안 형과 동생은 학교와 유치원에 가지 못했다. 피곤한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캠핑장까지 마차를 몰았다. 몰티즈와 여우는 들뜬 기분이었다. 캠핑장에서 뛰어 놀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신이 났다.

캠핑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다. 깨끗한 냇물이 캠핑장을 끼고 흘렀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텐트를 치는 것이다. 넓은 사이트에 텐트 뼈대만 세워져 있었다. 햇빛을 가릴 지붕과 잠자리는 캠퍼들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 대개 침대는 폭신한 마른 풀잎을 이용하고 지붕은 참나무와 떡갈나무 따위의 활엽수를 엮어 만든다.

텐트가 완성되자 몰티즈와 여우는 캠핑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숲 체험을 했다. 소나무를 꼬물꼬물 기어오르는 송충이를 보기도 했고 매미가 되기 위해 땅을 뚫고 나온 굼벵이와 마주치기도 했다. 상수리나무 근처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물고 빠르게 나무를 오르는 다람쥐와 인사를 나눴다.

“도토리 좀 주워가도 될까?”

몰티즈와 여우가 물었다.

“도토리는 우리 먹이야. 너무 많이 주워가면 안 돼.”

나뭇가지에 앉아 도토리의 껍질을 벗기면서 다람쥐가 대답했다. 이미 다람쥐의 볼주머니에는 도토리가 가득했다.

“그래, 몇 개만 주워갈게.”

몰티즈와 여우는 쿵쿵, 냄새를 맡으며 도토리가 있는 곳을 찾아다녔다. 그래 저기 있군. 몰티즈는 냉큼 도토리 하나를 입에 물었다. 그 옆에 또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여우는 청설모가 여기저기 끊어놓은 상수리 나뭇가지를 발견했다. 거기에 작은 도토리가 잔뜩 매달렸다.

“형아, 여기 모자 쓴 도토리 되게 많아.”

“그만 가자. 엄마가 기다릴 거야.”

여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둥이를 계속 흙바닥에 바투대고 있었다. 그때였다. 위잉, 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아야, 아야.”

여우가 코를 움켜쥐고 나동그라졌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손과 발로 얼굴 주변을 허우적거렸다.

“빨리 냇물 속으로 뛰어들어!”

몰티즈는 여우를 향해 소리쳤다. 여우는 땅벌레 코가 쏘였다. 땅 속에 집이 있다고 해서

땅벌이다. 한 번에 여러 마리가 공격하는 특성이 있다. 크기는 작지만 쏘이면 무지 아프다. 여우는 퐁퐁 부은 코를 차가운 냇물에 담그면서 눈물과 콧물을 한 움큼 쏟아냈다. 몰티즈는 속으로 썸통이라고 생각했다. 집에서조차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하는 동생이었다. 게다가 동생이 실수를 하면 괜히 형까지 함께 혼나곤 했다. 이번 참에 그런 버릇을 고쳤으면 싶었다.

“넌 형이 돼가지고 하나 밖에 없는 동생도 제대로 못 보니?”

캠핑의자에서 쉬고 있던 엄마가 동생의 얼굴을 보고서는 몰티즈를 꾸짖었다.

“그게 아니고, 내가 하지 말았는데 계속 고집을 피웠다니깐.”

몰티즈가 조목조목 설명했다. 조금은 억울했다. 옆에 서 있던 아빠가 몰티즈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몰티즈와 여우는 찢 감자와 고구마맛탕으로 점심을 간단히 해결하고 낮잠이 들었다. 마차를 타고 오긴 했지만 고단했다. 한숨 자고 나니 어느덧 해가 누엣누엣 기울고 있었다.

“애들아, 저녁 먹어야지. 캠핑은 지금부터라고.”

아빠는 황토로 만들어진 화롯대에 불을 피웠다. 다른 텐트에서는 이미 불을 지피 저녁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캠핑장 주변에 낮게 깔렸다.

아빠가 토치로 불을 켜자 갈색 솔잎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며 빠르게 타들어갔다. 곧 잔가지와 장작에도 불이 붙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연어구이와 벌꿀에 절인 쏘시지야. 맛있겠지?”

가족들은 엄마가 준비한 요리에다 후식으로 레모네이드까지 마셨다. 나른해진 가족들은 장작불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와 그 냄새가 초여름 밤의 운치를 더했다. 캄캄한 하늘엔 별이 수없이 박혔다. 어디선가 별뿔별 한 개가 사선을 그으며 떨어졌다.

“장작불은 이런 밤에 피워야 제 맛이야. 정말 근사하지? 하늘의 별과 불뿔이 구별이 안 돼.”

아빠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여러 개의 장작을 한꺼번에 올렸더니 불뿔이 더 많이 생겼다. 불뿔이 바람을 따라 날아가다 흩어졌다. 마치 반딧불이 수 십 마리가 서로 꿈무늬를 부비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몰티즈와 여우는 그 아름다운 광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불은 피우는 것보다 잘 다루는 게 중요해. 알았지?”

아빠는 장작불이 사그라지자 부지깽이와 집계를 몰티즈에게 맡겼다.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하러 갔다. 어른을 기다리기 지루해진 몰티즈와 여우는 자갈이 깔린 캠핑장 공터에서 쥐불놀이를 했다. 화롯대에서 빨간 불씨를 꺼내 구멍이 승승 뚫린 강통에 담았다. 여기에 철사를 매달아 빙빙 돌렸다. 불씨가 담긴 강통은 붕붕, 소리를 내며 캄캄한 허공에서 불꽃 원을 그렸다. 맨 마지막에는 하늘 높이 강통을 던졌다. 강통 속 불씨가 밤하늘에 흩날려 불꽃축제를 하는 것만 같았다.

“우와, 멋있다.”

몰티즈와 여우가 짧은 감탄사를 토해냈다. 쥐불놀이를 마치고 아빠와 함께 화롯대의 잔불

을 정리했다. 끈이어 폭신한 침대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세다가 잠이 들었다.

“불이야!”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동물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텐트 밖으로 나오자 동물가족들이 공터에 모여 웅성거렸다. 그들 뒤편으로 시뻘건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풀잎 텐트 한 동에서 불이 났는데, 그것이 다른 텐트로 도미노처럼 옮겨 붙었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몰티즈와 여우는 속이 철렁했다. ‘혹 쥐불놀이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코끼리 가족이 시냇물을 퍼 날라 불을 끄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캠핑장 관리자인 토끼도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려 했지만 손쓰기에는 너무 늦었다. 불길은 캠핑장 뿐 아니라 인접한 산속에서도 피어올랐다. 여기저기서 동물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여기 애기가 있어요. 제발 구해주세요!”

거북이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걸음이 느린 거북이 부부는 불길을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아기 거북이만 텐트 안에 남았다고 했다. 아무도 그곳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며 새매 부대가 나타났다. 발톱에는 육각수가 가득 찬 물통이 들려 있었다. 날갯짓을 하면서 차례대로 물통을 거북이 가족이 머물던 텐트 위에 쏟아 부었다. 불길이 잦아들자 맨 마지막 새매가 새끼 거북이를 두 발로 사뿐히 들어올렸다. 동물 가족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어휴, 다행이야. 다행.”

“정말 감사합니다.”

새매 부대는 이제 캠핑장의 불을 진압하고 산으로 번진 불길을 잡는 일이 남았다. 다만 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이 정도 강풍이면 불길은 삼시간에 산을 태우고 반대편 동물마을까지 번질 것이다. 이미 그곳에도 적색경보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새매 부대원들은 시냇가에서 몸을 적시고 육각수 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무거운 육각수 통을 들고 불길 속으로 쉴 새 없이 날아갔다. 바람이 세고 연기는 자욱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불길을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두더지, 너구리, 수달은 냇가에 모여 새매 부대의 물보충 작업을 도와주었다. 몰티즈와 여우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부엉이와 크낙새, 비둘기 등 날개를 가진 동물은 직접 육각수 통을 진압현장에 공수하기도 했다. 나머지 동물은 부상자와 노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곰 아빠와 돼지 엄마는 그 대열에 동참했다.

불길은 이튿날 새벽녘에야 잡혔다. 산 너머 마을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대피했다. 화마가 민가까지 집어 삼켰다.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동물도 있었다. 고령의 염소 할아버지와 그를 돌보던 할머니였다.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귀가 어둡고 걸음이 느린 때문이었다. 암탉 가족은 어린 병아리 넷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다. 하늘도 날지 못하고 걸음도 종종걸음이라 불가항력이었다. 그나마 외국에서 일하러 온 기러기 부부가 병아리 셋을 구해

준 게 천만다행이었다.

캠핑장에서는 짧은 사슴 한 쌍이 불길에 휩싸인 텐트에서 뒤늦게 빠져나오다가 2도 화상을 입었다. 부딪히고 넘어져 찰과상과 발목부상을 입은 동물도 꽤 많았다.

화재 진압 도중 새매 부대원의 피해도 발생했다. 한 대원이 산불 연기에 질식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어둠이 짙고 불씨가 남아 있어 수색작업이 여의치 않았다. 그때 밤눈이 밝고 후각이 뛰어난 몰티즈와 여우가 수색작업에 자원했다.

“우리가 다녀올게요. 하늘에선 숲속이 보이지 않지만 냄새를 쫓아가면 찾을 수 있어요.”

아빠와 엄마는 내심 걱정이 앞섰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당장은 그게 최선이였다. 몰티즈와 여우는 새카맣게 타버린 숲에서 추락한 부대원을 한참이 지나서야 찾아냈다. 그는 심한 골절상과 화상을 입었다. 여우가 오우우우, 하고 큰 울음소리로 위치를 알렸다. 새매 부대원들이 쏜살같이 날아왔다. 끝내 그 대원의 생명을 건지진 못했다.

진압작전이 완료된 뒤에도 새매 부대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번 재난으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온 데다 대원까지 목숨을 잃었다. 남겨진 대원들도 불길에 갇털이 그을리고 날갯죽지에 심한 생채기가 났다.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05시30분 현재 불길은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동물은 병원으로, 그렇지 않은 동물은 안전하게 귀가하시면 됩니다.”

새매 부대장은 캠핑장 공터에 모여 있는 동물들에게 말했다. 동물의 얼굴과 몸에도 검댕이 잔뜩 묻었다.

“여러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됐습니다. 특히 어린 몰티즈와 여우 형제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새매 부대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자연발화로 추정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캠핑장 내 불씨 관리가 허술했던 게 아닐까 하고 의심을 품었다. 조사결과는 달랐다. 산에서 먼저 발화한 불씨가 캠핑장으로 날아왔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형태의 산불이 나곤 하는데, 이번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피해를 더 키웠다고 분석했다.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몰티즈는 하얀 털이 검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코가 툭툭 부은 여우는 목이 쉬어버렸다. 이들 형제는 새매 부대로부터 화재원인을 듣고서야 한쪽 가슴을 쓸어내렸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너무 긴 하루였다. 앞으로 또 캠핑을 오더라도 불씨는 잘 관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빠와 엄마는 아이들을 살포시 안아주었다.<끝>

깊은 산속에 사는 폼폼이는 변신술을 아주 잘 하는 여우예요. 폼폼이의 엄마보다도, 할머니보다도 더 훌륭하지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재주래요. 그러니 실컷 써먹어야겠죠?

폼폼이는 틈만 나면 마을로 내려와 변신을 하곤 합니다. 영희 할머니의 일바지를 입고 할머니들과 효도관광을 가기도 했고, 중학교에 다니는 지애의 짝 끼는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품 가게를 어슬렁거리기도 해요. 그렇게 마을을 신나게 휘젓고 다녀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폼폼이의 변신술은 그만큼 감쪽같았어요.

“히히, 재밌다 재밌어! 오늘은 또 누구로 변신을 할까?”

폼폼이는 매일 매일이 즐겁고 신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폼폼이는 아담한 건물 앞에 있는 멋진 자동차를 발견했어요. 눈이 번쩍 뜨이는 빨간색에 반듯한 모양이 아주 듬직해 보였지요. 폼폼이는 그 자동차가 마음에 쏙 들었어요. 마치 자석에게 철가루가 이끌리듯 자동차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자동차 옆에 무언가가 놓여있었어요. 위에서 보면 마치 도넛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옷이었어요.

폼폼이가 입어본 옷은 보통 줄에 나풀나풀 걸려있거나, 어딘가에 쑤셔 박혀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옷은 멋진 빨간 자동차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었어요. 누군가가 옷을 입고 있다가 아래로 쪽 내려 몸만 쪽 빠진 모양이었어요. 신발까지도요. 자동차를 한 바퀴 둘러보니 도넛모양 옷은 여러 벌이었어요. 한 벌쯤 없어져도 모를 것 같았지요.

“그래 오늘은 이거다! 이 옷을 입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자동차도 탈 수 있겠지?”

폼폼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새 또 사람으로 변했지요. 조심스럽게 구멍 하나에 한 발을 넣었어요. 발은 바지를 통과해 묵직한 장화에 쏙 들어갔어요. 잠깐 기우뚱했지만, 폼폼이는 다른 구멍에도 발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바지를 위로 쑤욱 끌어 올렸지요. 입고 나니 왜 옷이 그런 모양으로 놓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두면 옷을 훨씬 빨리 입을 수 있거든요. 물론 폼폼이는 처음 입어봐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요. 옷을 벗어둔 사람은 성미가 급하거나 무척 바쁜 사람이 틀림없어요.

위웅 위웅 위웅

화재출동! 화재출동!

귀를 찌를 듯한 큰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알람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지요. 곧이어 건장한 남자 어른들이 이층에서 내려왔어요. 폼폼이는 깜짝 놀랐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남자들은 도넛모양

옷을 재빨리 입고 빨간 자동차에 올라탔어요. 폼폼이도 옷에 달린 멜빵을 어깨에 걸치고 어 기적거리며 차에 올랐어요.

“어이! 신입인가? 서두르라고!”

폼폼이도 빨리 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까 신은 장화는 돌이라도 매달아 놓은 것처럼 아주 묵직했어요. 겨우겨우 폼폼이가 차에 오르자, 빨간 자동차는 천둥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빠르게 달렸어요. 다른 차들도 빨간 자동차가 빨리 달리도록 샤샤샤 길을 터주었어요. 폼폼이의 엉덩이가 저절로 들썩거렸어요. 이렇게 신나는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어요. 언젠가 놀이공원에서 탄 꼬마기차보다 훨씬 재밌었어요. 저도 모르게 깔깔깔 웃음이 나올 뻔했지요.

“뭐 해? 얼른 준비해야지!”

차에 탄 사람들은 윗옷을 입고 머리에는 모자를 몇 개나 썼어요. 거기에 아주 아주 무거운 기다란 통도 등에 둘러맸지요. 폼폼이는 옆 사람을 흘깃거리며 준비를 마쳤어요. 따라서 하는 건 뭐든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런데 다 준비를 하고나니 몸이 아주 무거워졌어요.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지금 화재가 난 곳은 주택이 밀집한 빌라라 진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심각한 얼굴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폼폼이는 귀를 쫑긋 세우고 눈동자만 이리 저리 굴릴 뿐이었지요. 차창 밖은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자동차도 사람도, 나무도, 집도... 그런데 점점 냄새가 났어요. 무언가 타는, 아주 고약한 냄새였어요. 그래도 차 안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익숙한 냄새인가 봐요.

드디어 차가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2층짜리 집이 일렁거리듯 서 있었어요.

“소방관들이 오셨네! 아이고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반갑게 빨간 자동차 사람들을 맞아주었어요. 그제야 폼폼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된지 알았어요. 늘 재밌는 일만 찾아다녔는데, 불을 꺼야 한다니 덜컥 겁이 났어요. 차에서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폼폼이와 달리 소방관들은 우르르 내려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이고 다 타네. 다 타!”

불 타는 집 앞에 여러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 모습을 보니 폼폼이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 난 여우 중에 제일 재능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폼폼이는 끄차 힘을 내 차 밖으로 나왔어요. 때마침 소방관 한 명이 둥근 방석같은 것을 꺼내더니 바닥에 굴렸어요. 휘리릭 긴 호스가 나왔지요. 마치 마술이라도 하는 것 같았어요. 호스는 차에 있는 물탱크와 연결되었어요.

“자네가 뒤를 잡게!”

폼폼이에게 한 소방관이 호스를 잡고 말했어요. 폼폼이는 소방관의 뒤에 서서 호스를 같이 잡았어요. 호스는 끌렁거리더니 곧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힘찬 물줄기였지요. 폼폼이는 뱀보다도 억세고 무거운 호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 덕에 물줄기가 불길을 조금씩 잡아갔어요. 그래도 아직 열기는 대단해서 폼폼이는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저기 이층에 어린 아기랑 엄마가 살아요! 빨리 구해주세요!”

누군가의 외침에 소방관들이 벌건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나 혼자해도 되니. 인명구조에 합류하게!”

폼폼이는 호스를 놓고 고약한 연기가 가득한 집으로 쭈뼛쭈뼛 들어갔어요.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집 안은 연기와 재로 가득 차 캄캄했어요.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지요. 게다가 코도 눈도 너무 매워 죽을 지경이었어요. 무거운 옷과 신발, 그리고 통을 메고 그런 곳을 걷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폼폼이는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어요.

“요구조자 발견! 요구조자 발견! 2층에서 내려갑니다!”

아기의 울음이 점점 가까이 들려왔어요. 다행히 아기와 엄마를 구했나 봐요.

“이제 밖으로 나가야겠다.”

폼폼이는 들어온 입구를 찾아보았어요. 그렇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입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머리가 어질어질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폼폼이는 다시 여우가 되어 쓰러진 채 힘없이 울어댔어요. 온 힘을 다해 울었지요. 하지만 그 울음도 오래는 못 갔어요. 도저히 숨을 쉴 수도 눈을 뜰 수도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억센 손 하나가 폼폼이를 안았어요. 용감한 소방관이었지요. 그 든든한 품에 안겨 폼폼이는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폼폼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코에서는 콧물이 사정없이 흘러내렸어요.

무섭게 일렁이던 불도 어느새 꺼지고 사람들도 다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기엄마는 아기를 안은 채 계속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검게 그을린 얼굴에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내렸지요.

“저희도 감사합니다. 잘 버티셨어요. 치료 잘 받으세요.”

역시 검게 그을린 소방관들도 같이 인사를 했어요. 빨간 자동차를 뒤따라온 하얀 자동차의 뒷문이 활짝 열리고 아기 엄마와 아기가 차에 올랐어요. 하얀차는 곧 요란한 소리와 초

록불빛을 뿜어내며 골목을 벗어났지요.

“은행마을 화재 진압 완료. 부상자 총 2명 병원으로 이송중. 에... 그리고 여우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외상은 없어 보이나 동물병원에 이송하겠습니다.”

폼폼이를 구해준 소방관이 무전연락을 하며 폼폼이를 바라봤어요.

“가정집에 웬 여우람? 넌 여기 어떻게 온 거니?”

폼폼이 하마터면 대답할 뻔했어요. 폼폼이를 구해준 은인이니까요. 소방관은 폼폼이를 몇 번 쓰다듬더니, 데려갈 상자를 구하러 갔어요. 그러다 폼폼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사람들에게 잡혀가면 이제 엄마를 못 만날 수도 있고, 변신도 못할 거예요. 몸이 무척 힘들었지만, 힘을 짜내 살금살금 도망쳤어요. 어두운 골목을 몇 개나 지나 아무도 없는 공원을 발견했지요. 폼폼이는 모래놀이터에 벌러덩 누웠어요.

“큰 일 날 뻔했네.”

폼폼이는 몇 번이나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기침을 해도 해도 또 나왔어요. 그리고 자꾸 일렁거리던 불과 어두컴컴한 집이 생각났지요. 그래도 숨을 쉴수록 기침은 잦아 들었고, 사정없이 두근거리던 가슴도 조금씩 진정됐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도 참 많았지요. 폼폼이는 그제야 집으로 갈 힘이 생겼어요. 유난히 밝은 달이 폼폼이가 가는 길을 지켜주었지요.

그 날 이후에도 폼폼이의 흥내놀이는 끝나지 않았어요. 헌옷 수거함에서 주운 아이 옷을 입고 유치원에서 신나게 놀기도 하고, 연수네 아빠가 벗어놓은 장화를 신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한 날도 있고, 나뭇가지로 엮은 바구니를 들고 장터 구경을 실컷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다시는, 다시는 소방관 흥내를 내지 않았어요. 소방관은 폼폼이가 흥내 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너무나 고귀한 역할이었어요.

소방서에는 가끔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는 작은 선물이 오곤 했어요. 멋진 빨간 자동차 옆에 어느 날은 산딸기가, 어느 날엔 도토리가, 또 어느 날엔 뽀뽀뽀한 글씨로 쓴 응원편지가 놓여 있곤 했답니다.

소방관 아저씨 머썬요!
소방관 아저씨 고마스니다!
소방관 아저씨는
영웅!

“아빠, 우리도 빨간 구슬 찾아보자!”

호수 공원에 산책 나온 미르가 아빠 손을 잡아끌며 말했다.

“빨간 구슬?”

“응, 행운의 구슬이래. 해치도 그 구슬 찾으러 다닌대.”

미르는 스마트폰을 꺼내 능숙하게 아이콘을 누르더니 ‘호수 공원 해치’ 사이트를 찾아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치를 봤다는 사람과 빨간 구슬을 발견한 사람들이 올린 인증샷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어. ‘해치 인증샷’에는 온갖 추측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

-근데 그 해치, 완전 무서움!

-내가 본 건 길고양이같은 모습이었음. 근데 덩치는 고양이보다 훨씬 컸음

-우리 집 앞에서 빨간 구슬 봤었는데 그 괴물이 빼앗아 갔음

“아빠, 근데 해치가 뭐야?”

“우리 조상들이 화재를 막아준다고 믿었던 상상의 동물이야. 경복궁 앞에 호랑이 닮은 조각상 있지? 그 동물이 해치야. 근데 누가 장난하나본데...해치는 상상의 동물이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해치가 돌아다니겠어?”

아빠는 그런 말을 믿는 미르가 귀여웠어. 아직 3학년이지만 아빠 눈에는 그저 귀여운 막내 아들로만 보였지.

미르 아빠는 소방관이라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쉬는 날이면 미르는 아빠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려고 했어. 아빠도 못 이기는 척 미르가 하자는 대로 같이 놀아줄 때가 많았어. 하지만 오늘은 야간 근무라서 저녁에 출근해야 했어.

“에이, 아빠가 야간 근무 가는 건 싫더라.”

“화재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잖아.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지! 그대신 모레는 하루 종일 미르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은 산책하는걸로 만족하자. 오케이?”

“네...”

아빠는 미르한테 미안할 때가 많았어. 미르랑 놀다가도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곧바로 소방서로 복귀해야 했거든. 그럴 때마다 엄마는 풀이 죽은 미르를 달래줘야 했고, 아빠는 발걸음이 무거웠어.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 빠진 다른 사람들을 구해야한다는 생각에 꾸물댈 수가 없었지.

다음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자마자 아빠는 다시 외출 준비를 서둘렀어.

“미르야, 미안! 오늘은 미르랑 많이 놀아주려고 했는데... 호수 공원에서 며칠째 계속 나무들이 불탄다는 신고가 들어오네. 우리 동네니까 아빠가 현장 점검 좀 하고 올게!”

“나도 같이 갈래!”

막상 아빠를 쫓아 나왔지만 미르는 혼자 놀아야 했어. 아빠는 소방 도구들을 챙겨서 바쁘게 공원 이 곳 저 곳을 살피고 다녔거든.

호수 공원은 봄마다 벚꽃 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해. 여름에는 무성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 주고, 가을에는 울긋불긋 단풍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야. 미르와 친구들은 아파트 놀이터대신 공원에 모여 축구도 하고, 자전거를 타곤 했어. 하지만 오늘은 미르 혼자 놀게 됐지 뭐야.

‘아빠는 쉬는 날에도 일하고...챗!’

괜히 심술이 난 미르는 발부리에 걸린 돌멩이를 걷어챘어. 돌멩이는 풀숲 더미 속으로 또르륵 굴러 들어갔어. 순간, 미르 눈에 뭔가 반짝 눈에 띄는게 보였어.

“구슬이다!”

풀숲 더미에 손을 뻗어 구슬을 움켜쥔 미르는 신이 났어. 아빠랑 같이 찾으려고 했던 행운의 구슬을 금세 찾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지. 구슬은 당구공처럼 컷고 단단했어.

“그 구슬 내려놔!”

미르 앞에 이상한 동물이 나타났어.

“으악!”

“놀라지마! 나 해치야!”

깜짝 놀란 미르는 비명을 지르며 풀숲으로 쓰러졌어. 손에 들고 있던 빨간 구슬도 테구르르 굴러 떨어졌지. 순간, 풀숲 더미에서 뜨거운 불씨가 튀어올랐어.

“앗, 뜨거!”

미르가 소리 지르는 사이 해치는 입에서 파란 물을 뱉어 불을 꺾어. 해치는 작은 호랑이처럼 보였는데 파란색 깃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었고 겨드랑이에는 날개 깃털이 돋아나 있었어.

“내 구슬... 행운의 구슬 겨우 찾았는데...”

“행운의 구슬이 아니라 불덩이야!”

“불덩이라구?”

“응, 저건 불씨가 들어있는 불덩이 구슬이야!”

그때였어. 벚꽃나무 뒤에서 회색빛 동물이 나타났어. 작은 곰처럼 생겼는데 온몸의 털이 바늘처럼 날카롭고 뾰족했어.

“불가살이야. 내가 쫓아낼게.”

해치가 막아서자 불가살은 ‘끄드득 끄드득’ 이빨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다가왔어. 불가살의 입에서 붉고 뜨거운 입김이 쉼쉼! 나왔어.

“으아악!”

공포감에 질린 미르가 소리쳤어. 그런 미르를 막아서며 해치가 불가살에게 달려들었어. 해치의 외뿔에 목덜미를 찍힌 불가살은 슬금슬금 뒤로 물러났어. 해치의 앞발에 목덜미를 공격당한 불가살은 입에서 뜨거운 불덩이를 꾸역꾸역 토해냈어. 불덩이는 금세 당구공처럼

매끈하고 단단한 구슬로 변했지. 해치는 입에서 파란 물을 내뿜었어. 그러자 불덩이는 순식간에 검은 연기를 일으키며 사라졌어.

그 순간, 미르는 아빠를 보는 것 같았어. 언젠가 화재 현장에 출동한 아빠가 TV 뉴스에 나왔었는데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엄청 용감해 보였거든.

해치에게 물공격을 당한 불가살은 뒷걸음질 치며 호수 건너편으로 도망쳤어.

“괜찮아? 무서웠지?”

해치가 말했어.

“응... 저 괴물 뭐야?”

미르는 무서움에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어.

“쇠를 먹고 사는 강철 동물이야. 원래는 우리처럼 불을 없애는 일을 했었어. 그런데 자기 힘이 커지니까 저렇게 불덩이를 빨간 구슬로 만들어서 세상을 위협하게 만들고 있어.”

해치는 검게 그을린 얼굴을 일그러뜨렸어.

“불가살이 뿌린 불덩이는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불씨를 일으키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큰불로 번지게 돼. 불덩이를 찾아서 없애는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멋지다! 우리 아빠도 불 끄는 소방관인데...”

“그래? 그럼 나랑 같은 일 하는거네... 나는 입에서 물을 뿜어낼 수도 있어. 너희 아빠도 그래?”

“ㅋㅋㅋㅋ... 입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 소방 호스를 끌어다가 불을 한 번에 끌 수 있지. 너 입에서 나오는 물보다 몇백 배는 더 많을걸!”

미르는 어느새 해치와 친구가 된 것 같았어.

미르가 안심한 사이 벚꽃나무 주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어. 자세히 보니 불가살이 뜨거운 불씨를 ‘킉킉’토해내며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었어. 불가살이 지나간 나무 밑동에서는 검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 올랐어. 미르가 소리쳤어.

“물! 물 어딴어요?”

“불난 것도 아닌데 웬 물?”

“연기 조금 나는 것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구경하던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나 둘 흩어졌어. 하지만 미르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미르는 평소에 아빠가 가르쳐준대로 연기나는 곳을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흙으로 재빨리 덮었어. 그런 다음 풀숲 더미에 가려져 있던 스프링클러를 찾아서 틀었지.

-치이익, 치이익...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검은 연기가 사그라지는 소리가 들렸어.

‘그동안 불가살이 나무를 태웠던거야?’

미르는 풀숲 더미를 향해 돌맹이를 집어던졌어. 불가살이 어디선가 불이 번지기를 숨어서

보고 있을 것만 같았거든. 아니나 다를까, 풀숲 더미 뒤에서 불가살이 튀어 나왔어. ‘크형!’ 불가살의 입에서 뜨거운 입김이 뿜어져 나왔지.

그때였어. 해치가 다시 불가살을 막아섰어. 하지만 이번에는 불가살도 만만치 않았어. 불가살은 사나운 앞발을 들어 해치를 공격했어. ‘크형!’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해치 목덜미를 할퀴는 불가살은 해치 등에 올라타려고 했어. 그런 불가살을 향해 해치는 파란 물을 내뿜었어. 그때였어!

“미르야! 미르야!”

미르를 발견한 아빠는 화재 진압용 드론을 움직여서 불가살의 몸에 초고속 물대포를 발사했어. 강철같이 단단한 불가살의 몸도 강력한 물대포에는 어쩔 수 없었어. 물대포를 맞은 불가살은 비틀거리다가 호수로 풍덩 떨어졌어.

“너희 아빠가 와서 다행이야!”

검게 그을린 날개 깃털을 파닥파닥 털어내며 해치가 히죽 웃었어.

“괜찮아, 해치야?”

“응, 괜찮아. 아까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흙으로 덮은건 아주 잘했어. 불씨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응, 아빠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어!”

“먼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이 화재를 막아주고 그랬었어. 하지만 사람들 스스로 화재 사고를 막아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필요없게 됐어. 특히 불이 나면 불덩이들과 싸우는 용감한 소방관들이 있잖아. 너희 아빠처럼 말이야! 우린 잊혀진 동물이 됐지만...”

미르는 괜히 머리를 긁적였어. 해치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거든.

“너희들을 잊은 건 아니야. 해치야, 너희들이 필요해! 우리 아빠의 마스크트가 되어줘!”

“마스크트?”

“응, 아빠가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마다 걱정된단 말이야. 우리 소방관 아빠들의 수호신이 되어줘! 너가 있다면 우리 아빠도 든든해 할거야!”

“하하하... 그럴까?”

얼굴에 검정 그을음이 묻은 해치 얼굴이 꼭 아빠 얼굴 같았어. 아빠도 화재 현장에 다녀온 날에는 항상 얼굴에 그을음 자국이 남아있었거든.

그 사이, 아빠는 불가살이 퍼뜨려 놓은 불씨 덩어리를 모두 없애고 돌아왔어.

“여기는 호수 공원! 며칠 째 나무를 불태우던 방화범의 정체를 알아냈다 오버!”

소방본부에 무전을 치는 아빠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어. 어, 그런데... 아빠의 소방복 가슴 위에 마스크트 배지 하나가 눈에 띄었어. 그건 바로 해치였어!

미르는 이제 아빠가 화재 현장에 출동해도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늘 해치가 아빠랑 같이 있을테니까 말이야.

“할머니이.”

누나가 애원하듯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문이 반쯤 열려있는 방안을 훑쳐보았습니다. 방에서는 무거운 공기만 감돌았지요. 잠시 뒤 할머니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만 나가봐라. 이제 할미도 피곤하다.”

“할머니, 제발 허락해 주세요.”

누나는 간절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졸랐습니다.

“오늘은 할 말이 없어. 그냥 나가 보래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묵직해지자 누나 곁의 석봉이 형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흑, 알았어요. 태규 씨 얼른 일어나!”

방문이 열리며 누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뭇거리던 태규 형도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뒤따랐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빠 엄마도 얼굴을 찡그렸지요. 나의 입에서도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휴, 우리 누나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며칠 전 직장을 다니던 누나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다들 놀랐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레 누나에게 물었지요.

“애는 뭐가 그리 급해? 그래, 태규네 부모님은 뭐라셔?”

“응. 마냥 좋다고 하시지. 헤헤.”

나는 키가 썩중한 그 형이 몇 년 전 집에 놀러 왔을 때를 기억해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 네가 용진이구나. 아저씨는 무슨. 그냥 형이라고 불러.’

빙글빙글 웃음기가 많은 형이었습니다. 누나와 태규 형 둘 다 학생이던 때였지요. 대학 졸업 후 누나가 직장을 얻고, 뒤이어 태규 형도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때부터 진지하게 사귀는 것 같았는데...

“태규 그 친구가 소방관이라고 했지? 흠흠.”

누나가 그 형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아빠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왜요? 아빠. 소방관이 뭐 어때서? 할아버지도 예전에 소방관이셨다면서?”

“아냐, 일단 데려와 봐라.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려야지.”

웬일인지 아빠는 초조한 얼굴이었지요. 엄마도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데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방관이 얼마나 멋진데!

태규 형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오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언짢은 얼굴로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태규 형을 바라다 주고 돌아온 누나가 씩씩대며 아빠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왜 그러셔? 태규 씨가 싫은 거야? 소방관이 싫은 거야?”
아빠는 씩씩한 표정으로 조개처럼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입니다. 소파에서 퐁퐁고 있는데 할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잠을 못 잔 듯 푸석푸석한 얼굴로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네 아버지 산소에 좀 다녀와야겠다.”

“예, 어머니. 그럼 제가 모실게요.”

“아냐. 혼자 다녀오마.”

소방관이었다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묘지에 잠들어계시지요. 난 예전에 할아버지가 활짝 웃던 젊은 날의 흑백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 어디 있을까? 이젠 할아버지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네.’

나는 할아버지 얼굴을 생각해 내려 했으나 암만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누나 방 쪽으로 잠시 눈길을 돌리더니 성큼 나갔습니다. 누나는 온종일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늘어질 무렵, 할머니는 돌아오자마자 누나를 찾았습니다. 누나가 뽀로통한 얼굴로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지요.

“어제 온 친구가 태규라고 했지? 인상은 좋아 보이는구나.”

“...”

“어젠 이 할머니가 좀 미안했다. 오늘 시간 되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

“어? 진짜? 할머니 최고!”

누나가 할머니를 와락 안았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냉면 먹으러 가지요.”

누나가 방에서 신나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규 씨, 빨리 와. 오늘 우리 식구랑 저녁으로 냉면 먹으러 가자.”

우리 가족을 태운 자동차가 신나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아빠는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태규 형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내가 결혼을 허락한 건 아니네. 우리 손녀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소방관 하면서 함부로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을 거지?”

“네. 어르신, 물론이지요.”

태규 형이 머리를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 약속만 꼭 지킨다면 내가 한 번 더 생각해보기로 하겠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나가 신이 난 듯 태규 형을 추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태규 씨는 어른들 말씀이라면 거역하는 법이 없어요.”

눈앞에 터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터널만 지나면 사거리에 유명한 북한 냉면집이 있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허락하겠구나.’

우리 차가 터널 한가운데를 지날 무렵, 갑자기 앞서던 차들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여기는 밀릴 일이 없는데.”

아빠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 아빠 저기 보세요.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요.”

내가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뒤집어진 승용차가 보였지요. 차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있었고 다른 차들이 그 옆을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놀란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통사고 났네. 어머머, 안에 사람이 있나 봐. 못 빠져나오는 것 같아!”

찌끄러진 차 앞 좌석에 이마에 피를 흘리는 운전자가 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선뜻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아빠를 보았습니다.

“아빠. 그냥 가요. 어차피 119를 불렀을 거예요. 금방 구조대가 오겠지.”

“그럴까?”

걱정스러운 얼굴로 창밖을 지켜보던 아빠가 다시 엑셀을 밟으려던 순간입니다. 사고 차에서 ‘뽕’ 소리가 나더니 불길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어, 큰일 났다! 안에 사람 있는데.”

차 주위의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저, 잠깐만요!”

잠자코 있던 태규 형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태규 형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차에 소화기 있죠?”

태규 형은 트렁크 안의 소화기를 들더니 사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태규 형은 불길을 향해 거침없이 소화기 분말을 쏘았습니다. 불길은 곧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그 광경을 보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할머니가 위험한 일 하지 말랬는데...’

나는 태규 형의 무모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운전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혹시 유리창 깰 도구 없을까요?”

태규 형이 외치자 누군가 망치를 갖다 주었습니다. 태규 형이 몇 번 내리치자 조수석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은 태규 형과 함께 잠긴 문을 열고 킁킁대며 운전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 운전자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태규 형은 운전자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폐 소생술을 펼쳤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태규 형 이마에 구슬땀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운전자 아저씨는 숨이 돌아오는지 멍한 눈을 떴습니다. 삐뽀 삐뽀, 응급차와 119가 막 도착했습니다. 태규 형은 힘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느새 뛰어나간 누나가 태규 형 옷자락을 잡고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이 바보야. 차가 폭발했으면 어쩔 뻔했어. 으흠.”

태규 형은 소매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미안한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냉면이 오른 탁자에 모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태규 형은 할머니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지요. 나는 입에 침이 말랐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태규 형 손을 지그시 잡았습니다.

“애들 할아버지가 소방관이었어. 사람 생명 구하겠다고 늘 화재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어. 내가 아뵘을 낳고 얼마 뒤 일이야. 결국 어느 날 큰 화상을 입고 말았지.”

아, 나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냥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알았거든요. 아빠의 눈가에 물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뒤로 소방관을 그만두었고 몇 년 화상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떴어. 난 그때부터 TV에 소방차만 나오면 채널을 돌렸지.”

할머니는 목이 메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이가 생전이 한 말이 뭔지 아니? ‘여보, 다들 나를 영웅이라고 하지만 나는 말이야, 내가 구한 많은 사람들보다 구하지 못한 몇 사람이 늘 가슴에 남아.’였어.”

할머니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까 자네가 위험한 일 나서지 않겠다고 했을 때 속으로 화났다. 이런 비겁한 녀석에게 어떻게 귀한 내 손녀를 맡길지. 그런데 이제 보니 안심이 되는구나.”

태규 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 꿈에 애 할아버지가 웃으며 나타났어. 산소에 가서 너희 결혼 소식 전하고 왔다. 아마 저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누나가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누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어, 저기 텔레비전 좀 봐.”

엄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TV에서는 태규 형이 터널 속에서 불 끄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지요. 리포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시민들은 용감했습니다. 특히 화면 속의 한 청년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다들 이

청년이 누군지 궁금해하는데요. 아, 지금 소방관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네요...”

할머니가 태규 형을 보며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오늘 참 멋졌네. 저렇게 내 손녀도 늘 지켜주게나.”

그 말에 태규 형이 살짝 미소를 지었지요. 나는 그제야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